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유망 신흥시장 민트(MINTs)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발행인 : 하태형  
편집주간 : 한상완  
편집위원 : 주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유망 신흥시장 민트(MINTs)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민트(MINTs) 4개국의 성장 잠재력 .....	3
(1) 멕시코(Mexico) .....	3
(2) 인도네시아(Indonesia) .....	6
(3) 나이지리아(Nigeria) .....	9
(4) 터키(Turkey) .....	12
3. 시사점 .....	15
【HRI 경제 통계】 .....	16

## &lt; 요약 &gt;

## ■ 개요

민트(MINTs)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나이지리아(Nigeria), 터키(Turkey) 등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4개국을 의미한다. 브릭스(BRICs) 4개국이 각 지역별 최대 규모의 신흥국이라면, 민트(MINTs) 4개국은 각 지역별로 두 번째 규모의 신흥국에 해당한다. 민트 4개국은 약 6.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13년 4.4%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민트 4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트 4개국의 경제적 특징 및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 ■ 민트(MINTs) 4개국의 성장 잠재력

## (1) 멕시코(Mexico)

**(높은 제조업 생산성)** 멕시코는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제조업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자동차 제조 공장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멕시코의 생산가능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월평균 실질임금(1,722달러, PPP기준)은 OECD 평균(13,050달러)의 약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미-중남미 시장 접근성)**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고급시장과 떠오르는 중남미 신흥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한 멕시코는 생산 및 유통 기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육상 및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직접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소비시장)** 또한, 멕시코는 소득 수준 증대와 중산층 확대에 따른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멕시코는 신흥 국가들 중에서 부유한 국가에 속하며,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2) 인도네시아(Indonesia)

**(다양한 자연자원)** 인도네시아는 지하자원, 농업자원, 관광자원 등 3대 자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다. 주석, 니켈, 금, 보크사이트, 구리 등 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또한 팜오일, 코코아 등 농업자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 유입)**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중점산업을 육성하는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 진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산층 비중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2050년 7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3) 나이지리아(Nigeria)**

**(에너지자원 강국)**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자원 보유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은 경제성장의 최대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원유 생산국인 나이지리아는 앞으로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젊은 인구대국)**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세계 7위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망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닛산, GE, P&G 등 글로벌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나이지리아 정부가 경제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면서 건설, 통신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증가하는 주택 및 도로건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건설 부문에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이동통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통신 서비스 산업의 시장잠재력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4) 터키(Turkey)**

**(지정학적 요충지)** 터키는 아시아,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터키를 경유하는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의 중동 국가들과 CIS 소속 국가들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에너지 물류 허브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풍부한 문화자산)** 서방 세계와 이슬람, 아시아권을 아우르는 문화자산을 보유한 터키는 역내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슬람, 유럽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빼어난 자연환경, 동로마제국 및 오스만제국의 문화적 유산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소비시장 확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터키는 경제 성장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터키의 1인당 GDP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급 상품의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 시사점**

**첫째, 민트 4개국을 각 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남미 시장, 아세안 경제권, 미개척 아프리카 대륙, 중앙아시아 경제권 등에 진출하기 위한 요충지로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민트가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저렴한 노동력 활용과 함께 급증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을 겨냥한 소비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진출 전략 모색을 통해 자원개발 등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신도시 건설 경험 활용 등 신사업 기회를 선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넷째, 경제 및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확대, 국가별 전문인력 양성, 문화 교류 확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1. 개요

○ 유망 신흥시장 민트(MINTs) 4개국 개요

- 민트(MINTs)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나이지리아(Nigeria), 터키(Turkey) 등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4개국을 의미
  - 브릭스(BRICs)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골드만삭스의 짐 오닐(Jim O'Neill)이 주목할 만한 신흥국가들로 언급한 바 있음<sup>1)</sup>
  - 민트에 속한 국가들은 민족적, 문화적 공통점이 없고 지역별로 흩어져 있으나 다양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흥국가들이라는 측면에서 유사
- 민트 소속 국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경제적 위상 강화 시도
  - 민트에 속하는 국가들은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의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중국 등 브릭스에 속하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률을 유지
  -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13년 4.4%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민트(MINTs) 소속 국가 개요 >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면적	1,943천km <sup>2</sup> (한반도의 9배)	1,904천km <sup>2</sup> (한반도의 8.5배)	924천km <sup>2</sup> (한반도의 4.2배)	784천km <sup>2</sup> (한반도의 3.5배)
수도	멕시코시티	자카르타	아부자	앙카라
인구	1억 2,030만 명	2억 5,400만 명	1억 7,700만 명	8,160만 명
민족	메스티조(60%), 인디언(30%)	자바족(41%), 순다족(15%)	250여개 종족	터키인(70~75%), 쿠르드족(18%)
종교	로마가톨릭(82.7%)	이슬람교(86%)	이슬람교(50%), 기독교(40%)	이슬람교(99.8%)
언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영어(공용어), 토착어	터키어
통화단위	페소(Peso)	루피아(Rupiah)	나이라(Naira)	리라(Lira)
GDP	1조 2,585억 달러 (한국의 103%)	8,700억 달러 (한국의 71%)	2,865억 달러 (한국의 23%)	8,270억 달러 (한국의 68%)
1인당GDP	10,630달러 (한국의 44%)	3,510달러 (한국의 14%)	1,690달러 (한국의 7%)	10,815달러 (한국의 44%)

자료 : CIA, 수출입은행, IMF(2013년 기준).

1) 민트(MINTs)라는 신조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11년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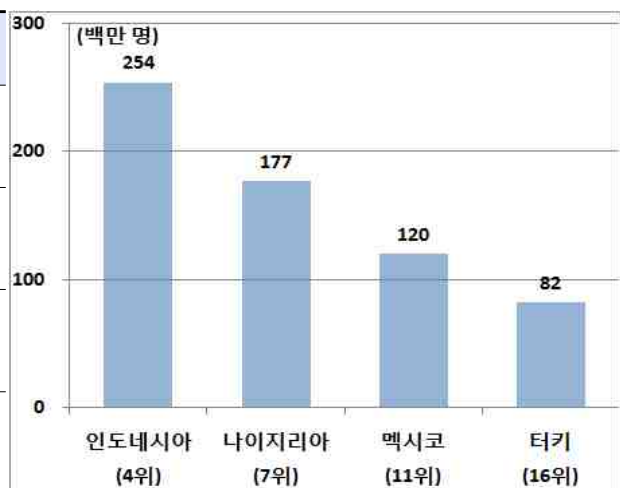
○ 민트(MINTs)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

-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등 브릭스(BRICS)<sup>2)</sup>의 성장이 예전만 같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민트가 부상
  - 브릭스에 속한 국가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흥국가이고, 민트에 속한 국가는 두 번째 규모의 신흥국가
  -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 큰 신흥국가이고, 중남미에서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신흥국가
  
- 민트에 속한 국가들은 대규모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 등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잠재력을 고루 갖추고 있음
  -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구 규모 측면에서 민트 경제권은 약 6.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터키를 제외한 3개국의 인구 규모가 1억 명을 상회
  - 대규모 인구는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풍부한 천연자원은 해외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원천
  
- 이에 민트에 속한 4개국의 성장 잠재력을 생산, 소비, 자원, 물류 등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브릭스와 민트 소속 국가들의 경제 규모>

	브릭스	민트
아시아	중국(1위) 인도(4위)	인도네시아 (6위)
중남미	브라질 (2위)	멕시코 (5위)
유럽	러시아 (3위)	터키 (7위)
아프리카	남아공 (16위)	나이지리아 (18위)

<민트 소속 국가들의 인구 규모>



주 : 괄호 안은 IMF 지정 153개 신흥국들 중에서 자료 : CIA(2013년 기준).  
 각국의 경제 규모(2013년 GDP 기준) 순위. 주 : 괄호 안은 세계 239개국 중 각국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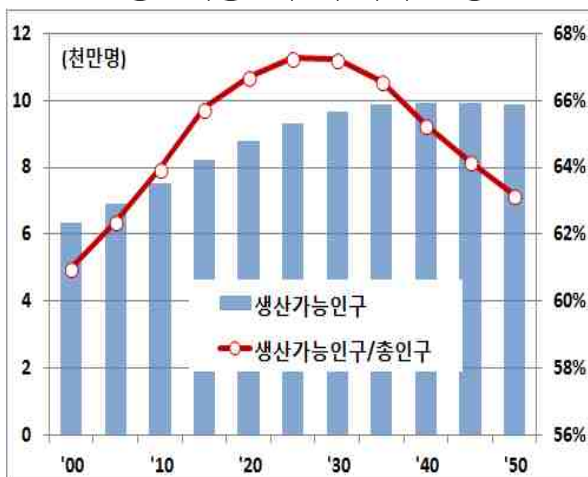
2)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의미하고 BRICS는 4개국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

## 2. 민트(MINTs) 4개국의 성장 잠재력

### (1) 멕시코(Mexico)

- (높은 제조업 생산성)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제조업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세계 자동차 제조 공장으로 부상 중
- 멕시코는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개방적 경제체제에 힘입어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
  - 멕시코의 생산가능 인구는 2000년 약 6,300만 명에서 2050년 약 1억 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멕시코의 월평균 실질임금(1,722달러, PPP기준)은 OECD 국가 평균 13,050 달러의 약 1/8에 불과한 최저 수준이며, 주변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sup>3)</sup>
  - 다만, 지역에 따라 임금수준의 격차가 크며 특히 미국 국경지역에 가까울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력 확보 경쟁이 치열함
- 이에 멕시코는 세계적인 제조 공장, 특히 자동차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 멕시코는 TV와 핸드폰 등 전자산업 부문에서 중국에 이어 미국시장 점유율 2위 국이며, 특히 BMW, 닛산, 도요타, G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투자가 확대
  -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은 193만 대에서 305만 대로 연평균 약 3.6%씩 증가

< 생산가능인구 추이와 전망 >



자료 : United Nations.  
 주 :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

<멕시코 자동차 생산과 세계 비중>



자료 : OICA.

3) 예를 들어 칠레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6,268 달러.



○ (북미-중남미 시장 접근성)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에 해당하며 육상·해상 물동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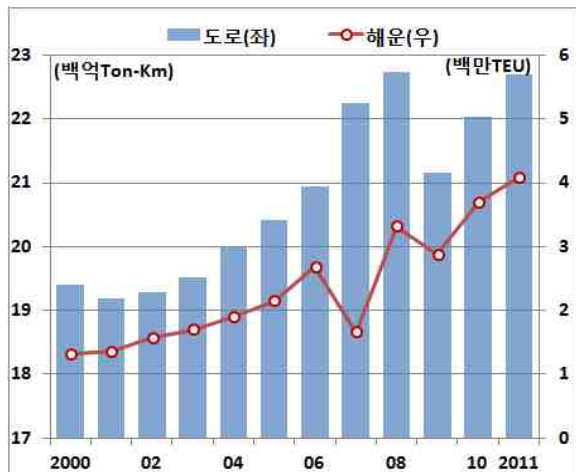
-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고급시장과 떠오르는 중남미 신흥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 및 유통 기지로서의 성장 잠재력 보유

- 멕시코는 주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미와 중남미 등 주변의 대규모 소비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물류 요충지에 해당
- 특히 미국 및 캐나다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생산 및 유통 거점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멕시코 자국에서 생산된 제조업 제품과 자원뿐만 아니라 40여개 국가와 맺은 FTA를 통해 수입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증가

- 실제로 육상 및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직접투자도 빠르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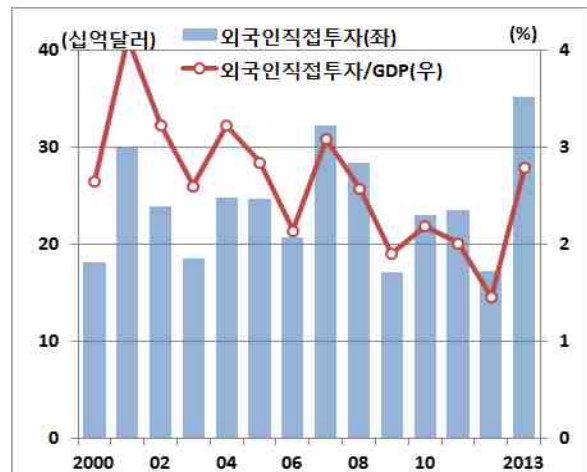
- 육상 물동량은 2011년 기준 2,961억Ton-km이며, 이중 도로 운송이 77%, 철도 운송이 23%를 담당하고 물동량도 증가 추세
- 해상 물동량은 2000년 132만 TEU에서 2012년 424만 TEU로 연평균 10.3%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멕시코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3년 3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연평균 5.2%씩 증가

< 운송 수단별 물동량 >



자료 : World Bank.

<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자료 : UNCTAD.

○ (대규모 소비시장) 소득 수준 증대와 중산층 확대에 따른 거대한 소비시장 형성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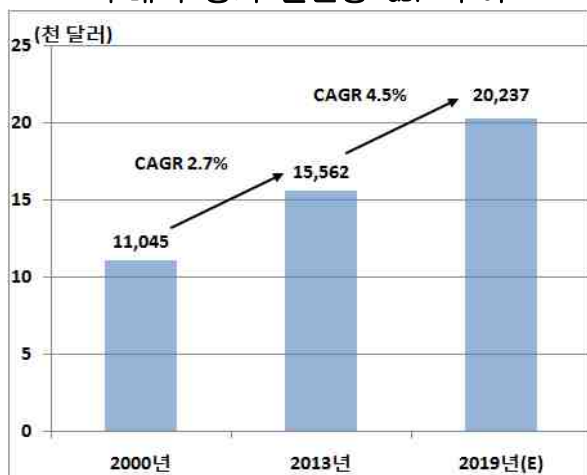
- 1억 2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멕시코는 신흥 국가들 중에서 부유한 국가에 속하며, 일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내수시장(인구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 및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내수시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2000년 11,000달러였던 멕시코의 일인당 GDP(구매력기준)는 2013년 15,500달러로 연평균 2.7%씩 증가
- 특히 향후에는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인당 GDP는 2014~2019년에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237달러(2019년)에 이를 전망

- 중산층 인구 비중이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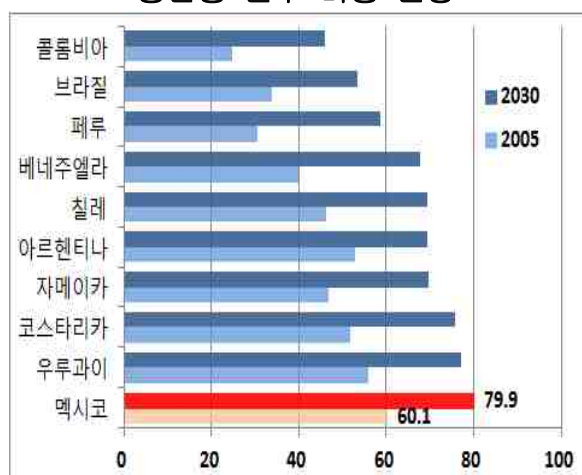
- 일인당 1일 소득이 10달러~100달러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2005년 60.1%에서 2030년 약 80%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특히 멕시코의 제조업이 부흥하면서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산층 비중 확대 추세
- 더불어 2012년 취임한 엔리케 니에토 대통령이 경제개혁과 빈곤 퇴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적으로도 중산층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구매력 평가 일인당 GDP 추이 >



자료 : IMF.

< 중산층 인구 비중 전망 >



자료 : Brookings.

주 : 중산층은 1인당 1일 소득이 \$10~\$100인 계층을 의미

(2) 인도네시아(Indonesia)

○ (다양한 자연자원) 지하자원과 농업자원, 관광자원 등 3대 자연자원을 보유

- 인도네시아는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
  - 주석(매장량 기준 세계 2위), 니켈(세계 6위), 금(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6위), 구리(세계8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의 동력
  -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음<sup>4)</sup>
- 팜오일, 코코아 등 농업자원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위 차지
  -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은 세계 1위이며, 유가상승으로 인해 팜오일에서 추출되는 바이오 디젤이 대체가능원료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sup>5)</sup>
  - 팜오일 뿐만 아니라 고무(2위), 코코아(2위), 커피(4위) 등의 생산에 있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호주, 미국, 탄자니아, 중국에 이어 6번째로 우수한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2013년 기준)
  - 인도네시아는 4곳의 세계자연문화유산(세계 10위), 2,600여종의 생물(세계 4위)을 보유하는 등 자연 관광자원이 풍부

< 지하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

	단위	매장량	생산량	
			2012년	2013년
구리	천톤	28,000(8위)	360	380
니켈	천톤	3,900(6위)	228	440
주석	천톤	800(2위)	41	40
금	톤	3,000(6위)	59	60
보크사이트	백만톤	1,000(6위)	29	30
석유	백만톤	600(28위)	45	43
천연가스	십억 입방피트	104,700(14위)	6.9	6.8
석탄	백만톤	5,529(14위)	386	421

자료 : USGS, BP.

주 : 1)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일당 생산량 기준.  
2) 괄호 안의 값은 매장량 순위.

< 농업자원 재배면적 및 생산량 >

	재배면적 (단위: 천ha)	생산량(단위: 천톤)	
		2012년	2013년
고무(2위)	540	583	670
팜오일(1위)	6171	16,818	17,391
코코아(2위)	85	53	55
커피(4위)	48	29	30

자료 : Statistics Indonesia, KOTRA.

주 : 1) 괄호 안의 값은 생산량 순위.  
2) 재배면적은 2013년 기준.

4)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석유수출기구(OPEC)의 회원국이었으나 2009년도에 탈퇴함.

5) KOTRA(Global Window) 자료 참조.

- (대규모 자본 유입)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인프라 개발 및 중점 산업을 육성하는 경제개발계획을 발표<sup>6)</sup>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
    - 인도네시아의 총고정투자는 2004년 577억 달러(GDP 대비 22.4%)에서 2013년 2,749억 달러(GDP 대비 31.7%)로 연평균 18.9%의 빠른 증가율을 기록
    -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총고정투자 비중(31.7%)은 베트남(23.6%), 필리핀(20.5%), 인도(28.4%), 브라질(18.2%), 러시아(21.5%)보다 높은 수준<sup>7)</sup>
  - 국내 투자의 바탕이 되는 대규모의 자본은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의 형식으로 해외에서 유입
    - 1970년~2013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은 1,284억 달러에 이룸
    - 총고정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4년(19억 달러)부터 외국인 투자액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기준 184억 달러를 기록<sup>8)</sup>
    - 산업별 투자액은 2012년 기준 농림어업 6.8%, 광공업 65.2%, 서비스업 27.9%이고, 2013년 기준 농림어업 5.8%, 광공업 72.2%, 서비스업 22.0% 수준<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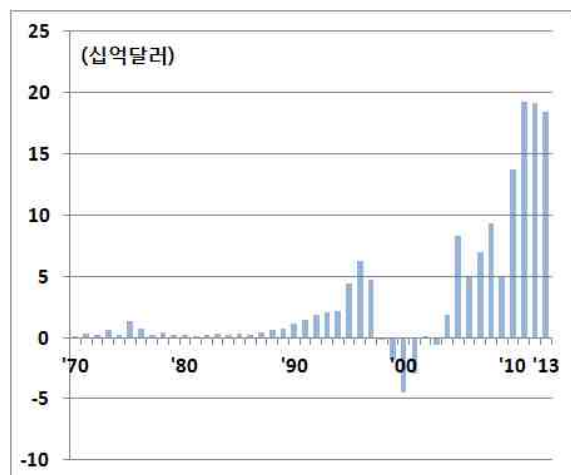
< 총고정투자 규모 및 비중 >



자료 : World Bank.

주 : 총고정투자(gross fixed investment)는 건설 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합계.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



자료 : UNCTAD.

6) Master 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MP3EI).

7) 다만 중국의 GDP 대비 총고정투자 비중은 49.3%(2013년 기준)로 인도네시아보다 높음(자료: World Bank).

8) BKPM(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86억 달러. 한편 UNCTAD와 BKPM의 데이터는 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9) BKPM(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자료 기준임.

○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 진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중산층 비중이 높아지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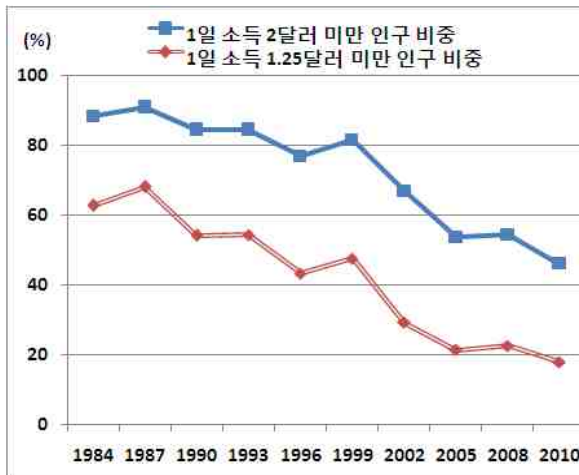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는 연평균 7.6%(2013년~2018년)씩 증가하여 2018년에 5,57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sup>10)</sup>
- 1일 소득 2달러(2005년 구매력 기준) 이하 인구 비중은 1984년 88%에서 2010년 46%로 감소 (1.25달러 이하의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18%로 감소)
- 한편, 연소득 3,000달러 이상의 중산층은 2009년 약 5,000만 명에서 2014년에는 약 1억 5,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sup>11)</sup>

- 인도네시아의 도시화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2050년 7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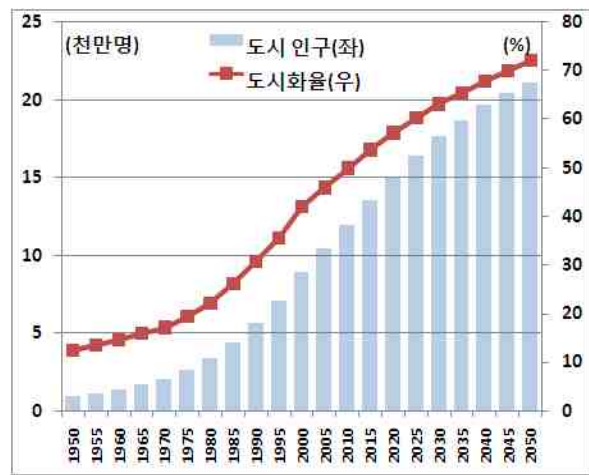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도시 거주 인구는 2011년 1억 2,289만 명에서 2050년 2억 1,152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총 인구 중 도시 거주 인구의 비율(도시화율)은 같은 기간 50.7%에서 72.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비중 추이>



자료 : World Bank.  
 주 : 1) 2005년 구매력 달러 기준,  
 2)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도네시아 도시화 추이 >



자료 : United Nations(2011년 기준).  
 주 : 도시화율 = 도시 인구 / 전체 인구.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3) 참조.

11) Nomura, CEIC 자료 참조.

(3) 나이지리아(Nigeria)

○ (에너지자원 강국)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에너지자원 보유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은 경제성장의 최대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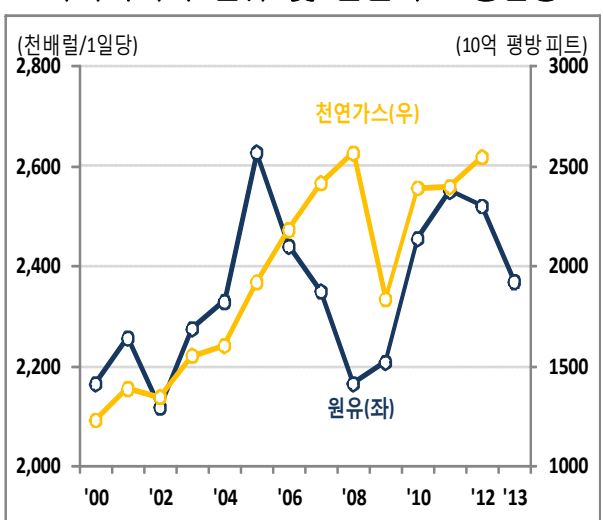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각각 세계 10위와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자원 부국임
  - 나이지리아는 2010년 매장량 기준으로 372억 배럴의 원유를 보유하며 세계10위, 아프리카에서는 2위를 차지
  - 천연가스 역시 2010년 매장량 기준 5.3조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어 세계에서 9위 아프리카에서 1위 규모
- 아프리카 최대 원유 생산국인 나이지리아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
  - 2013년 기준 원유 생산량은 1일당 237만 배럴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이며, 원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75% 이상과 재정수입의 85% 이상을 차지
  - 나이지리아는 현재 1일당 237만 배럴인 원유 생산량을 2020년까지 400만 배럴로 늘릴 계획임
  - 나이지리아는 현재 세계 5위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며, 연간 1,000만 톤의 LNG를 생산할 계획인 Brass LNG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향후 세계 2위의 LNG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

< 세계 원유매장량 순위 >

순위	국가명	매장량 (억배럴)	비중 (%)
1	사우디아라비아	2,626	17.8
2	베네주엘라	2,112	14.3
3	캐나다	1,752	11.9
4	이란	1,370	9.3
5	이라크	1,150	7.8
6	쿠웨이트	1,040	7.1
7	UAE	978	6.6
8	러시아	600	4.1
9	리비아	464	3.1
10	나이지리아	372	2.5

자료 : CIA.

< 나이지리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



자료 : EIA.



○ (젊은 인구대국) 아프리카 최대의 인구규모를 보유한 나이지리아는 최근 중산층 확대 및 도시화 진전에 따라 내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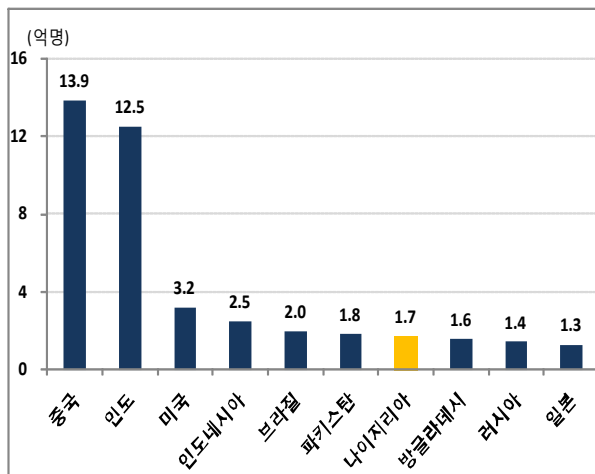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는 세계 7위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3%를 차지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13년 기준 약 1억 7,362만 명으로 아프리카 최대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
- 특히 젊은층 인구(15~34세)는 2013년 기준 약 5,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약 1억 7천만 명의 33%를 차지
- UN은 나이지리아의 인구가 2050년에 2억 8,900만 명으로 인도, 중국, 미국,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 등으로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며 내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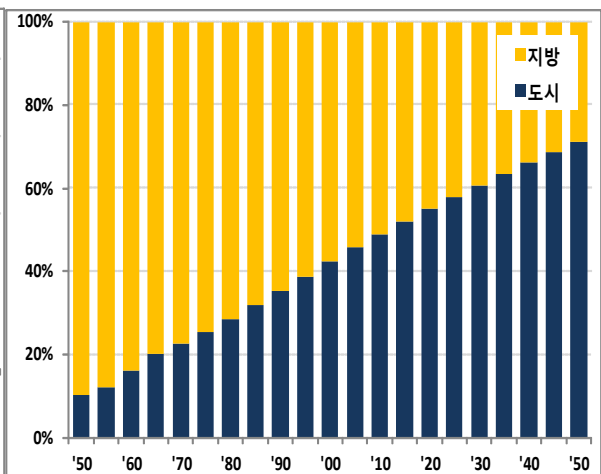
- 월소득 500~600달러인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30%까지 성장하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 소비시장이 확대
-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8,480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함에 따라 주택건설, 상하수도, 의료시설, 도로 건설 등의 수요가 급증
- 닛산, GE, P&G 등 글로벌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내수 시장을 겨냥하여 나이지리아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

< 세계 10대 인구 국가 >



자료 : UN.  
주 : 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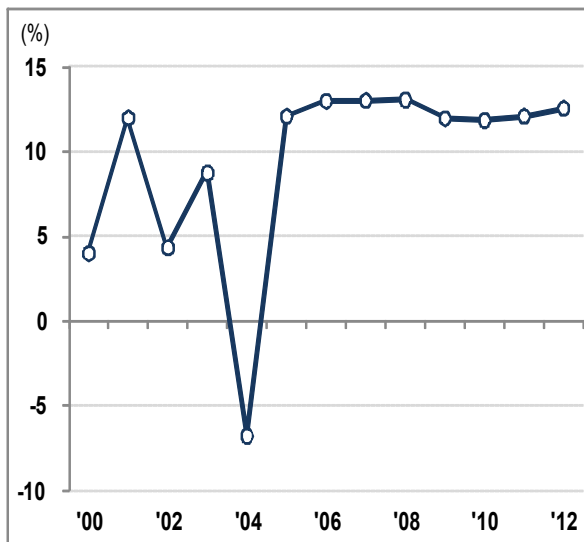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도시 및 지방 인구 비율 >



자료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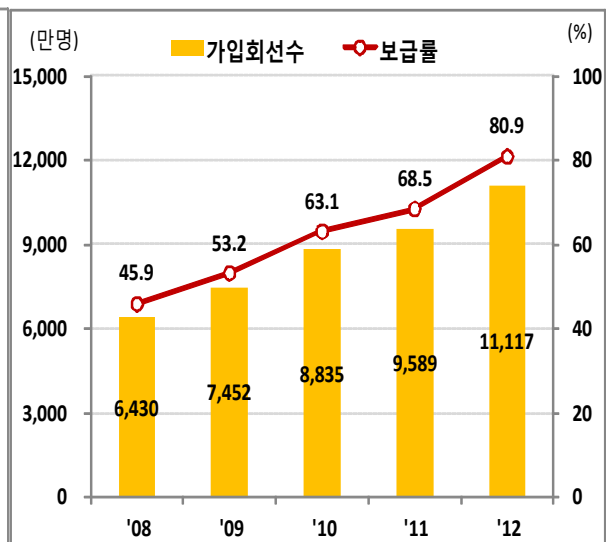
- (인프라 투자 확대) 나이지리아 정부가 경제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면서 건설, 통신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 증가하는 주택 및 도로건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건설 부문에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
    - 나이지리아 건설 부문의 성장률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0%대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나이지리아 정부와 외국계 오일메이저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발주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건설경기는 활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도로부문에 나이지리아는 도로확충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연간 12억 달러의 자금을 도로건설에 투입할 예정
  - 나이지리아는 이동통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잠재력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2년 기준 나이지리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1년 9,589만 명 대비 15.9% 증가한 1억 1,119만 명을 기록하고 있음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나이지리아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7%를 기록함
    - 나이지리아의 이동통신 보급률 역시 2009년 53.2%, 2010년 63.1%, 2011년 68.5%에서 2012년 80.9%로 급격히 증가

< 나이지리아 건설부문 성장률 >



자료 : 나이지리아 통계청.  
주 : 2010년 가격기준.

< 나이지리아 통신 가입자수 및 보급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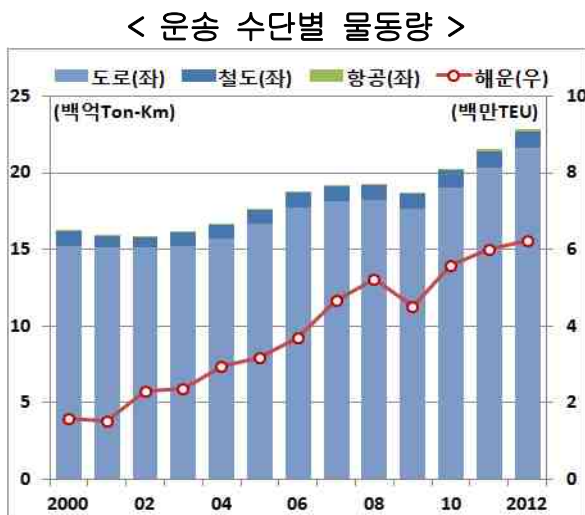


자료 : 나이지리아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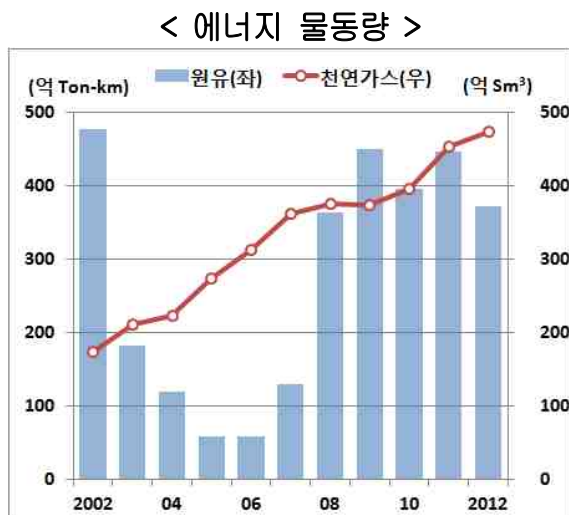


(4) 터키(Turkey)

- (지정학적 요충지) 터키는 아시아,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의 중심에 위치하며, 최근 유라시아 경제통합 가속화에 따라 물류 및 에너지 수송이 빠르게 증가
  - 주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 경유해야 하는 물류 요충지로 육상 및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육상(철도+도로) 물동량의 약 95.3%는 도로 물동량이고, 2000년 이후 철도 물동량은 0.8%, 도로 물동량은 3.0%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 항공 물동량은 육상 물동량의 0.9%에 불과하지만, 2000년 이후 육상 물동량을 초과하는 연평균 14.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해상 물동량은 2000년 159만 TEU에서 2012년 623만 TEU로 연평균 12.0%씩 빠르게 증가
  - 또한, 터키 인근의 중동 국가들과 CIS 소속 국가들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지이기 때문에 터키는 에너지 물류 허브로도 적합
    - 천연가스 수송량은 2002년 174억 Sm<sup>3</sup>에서 2012년 474억 Sm<sup>3</sup>로 연평균 10.6%의 증가율을 기록
    - 한편 원유 수송량은 2000년대 중반 급감하였다가 회복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373억 Ton-km로 2002년(477억 Ton-km) 수준에 미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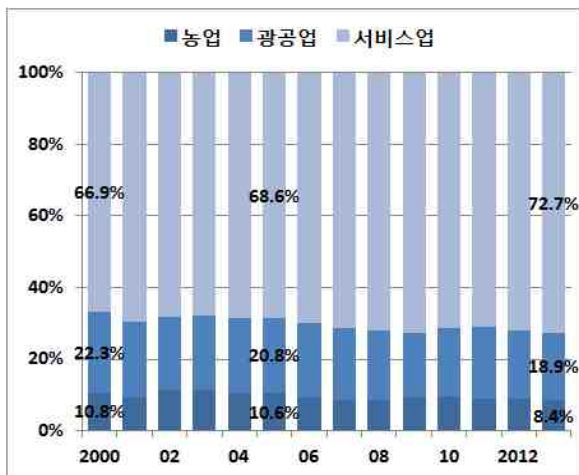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자료 : 터키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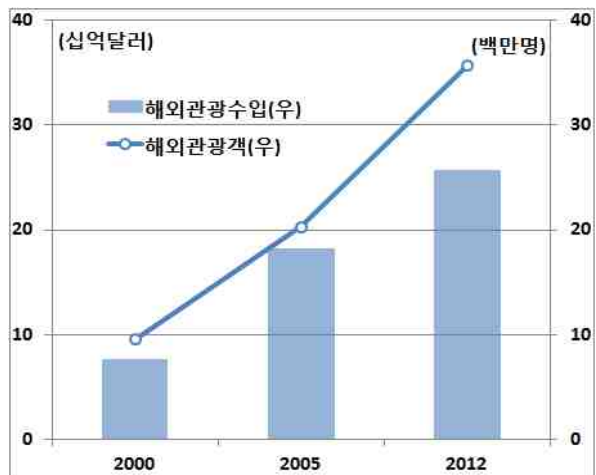
- (풍부한 문화자산) 서방 세계와 이슬람, 아시아권을 아우르는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서비스업·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터키는 이슬람, 유럽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주도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종, 언어, 종교 등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관계를 강화
    - 터키어 사용국 정상회담 개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통한 인사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
  - 또한 터키는 빼어난 자연환경, 동로마제국 및 오스만제국의 문화적 유산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업·관광산업이 발전
    - 터키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6.9%에서 2013년 72.7%로 꾸준히 증가
    - 터키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00년 960만 명에서 2012년 3,570만 명으로 연평균 11.6% 증가
    - 외국인 관광객이 터키에서 지출한 금액은 동일 기간 76억 달러에서 257억 달러로 연평균 10.7%의 증가율을 기록
    - 세계 각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 규모를 비교하면, 터키는 프랑스, 미국,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2012년 기준)의 관광 대국에 해당<sup>12)</sup>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



자료 : 터키 중앙은행.

< 터키를 방문한 해외관광객 및 관광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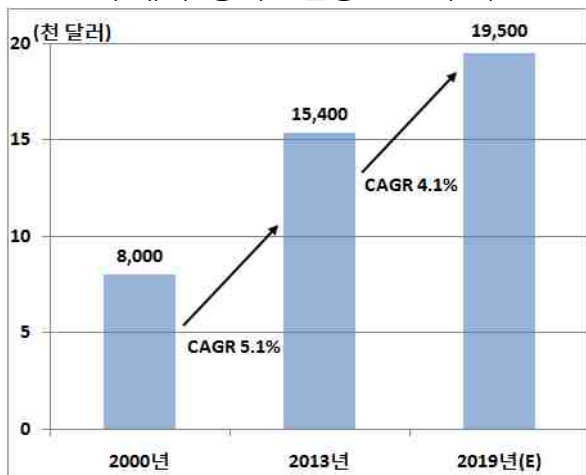


자료 : UNWTO.

12) UNWTO, Tourism Highlights(2013)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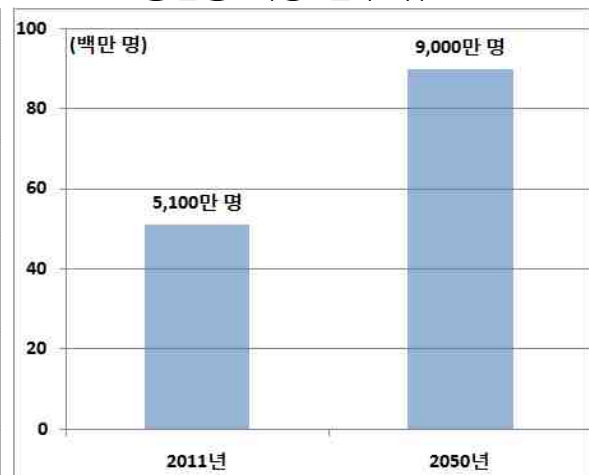
- (소비시장 확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터키는 경제 성장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
  - 대규모 인구를 보유한 터키는 신흥 국가들 중에서는 잘 사는 편에 속하며,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터키는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인구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인 이스탄불의 소비시장 규모는 불가리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에 필적하는 수준
    - 2000년 8,000달러에 불과하던 터키의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는 2013년 15,400달러로 연평균 5.1%씩 증가<sup>13)</sup>
    - 1인당 GDP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1%씩 증가하여 19,500달러(2019년)에 이를 전망<sup>14)</sup>
  -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급 상품의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대
    - 연평균 소득이 3,000달러 이상인 중산층과 고소득층 인구는 2011년 5,100만 명에서 2050년 9,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20~30대 젊은 중산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소비트렌드를 주도

< 구매력 평가 1인당 GDP 추이 >



자료 : IMF.

< 중산층 이상 인구 규모 >



자료 : UN, World Bank, HSBC.

주 : 연소득 3,000달러 이상 인구 규모(2000년 불변가격 기준).

13) 명목 1인당 GDP는 2000년 4,200 달러에서 2013년 10,800 달러로 연평균 7.6%씩 증가.

14) 명목 1인당 GDP는 2014~2019년에 연평균 3.0%씩 증가하여 12,900달러(2019년)에 이를 전망.

### 3. 시사점

- 첫째, 민트 소속 국가들을 각 지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 민트에 속한 국가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신흥국으로서,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멕시코는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의 전략적 거점으로, 나이지리아는 미개척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전진기지로, 터키는 중동·EU·CIS 경제권 진출을 위한 요충지로 활용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
- 둘째, 민트가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 대규모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
  - 동남아,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을 활용하여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 및 제품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글로벌 기업 진출의 확대에 따른 해외자본 유입 증가 및 경쟁 심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필요
- 셋째, 적극적인 진출 전략 모색을 통해 자원개발 등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나이지리아의 자원개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건설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다만 현지기업이나 자금력 및 정보력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병행
- 넷째, 경제 및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민트 소속 국가들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은 중국 등 브릭스 소속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상황
  -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민트 국가들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경제·문화적 협력 강화를 위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HRI**

미래연구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2072-6237, jangws@hri.co.kr)  
 안중기 선임연구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6	3.6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5	1.5	2.5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3	0.4	2.6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7.3	7.9	5.4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241	790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2	151	455	
	통관기준	수출(억 \$)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1,376	1,460	5,836
		증감률(%)	(-1.3)	(0.3)	(0.7)	(2.8)	(4.7)	(2.1)	(1.7)	(3.4)	(4.3)
	수입(억 \$)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1,324	1,309	5,381	
증감률(%)	(-0.9)	(-2.9)	(-2.8)	(0.3)	(2.5)	(-0.8)	(2.0)	(3.3)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1.6	1.7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7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29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